

팝핀댄스부터 아리랑까지... 터키를 달구다

박기홍 주터키한국문화원장



박기홍 원장

“터키 전역에 퍼진 한류팬들과 한국문화로 소통하고 싶었죠”

“추후 한국문화 종합축제 여는게 목표”

터키 팬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감염병의 장벽도 뚫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현지의 한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주터키한국문화원 박기홍 원장은 그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에 대한 현지의 끊임없는 관심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박 원장은 지난해 9월 부임해 터키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현지 팬들이 한류 콘텐츠의 우수성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20일 열린 '2021 터키-한국 소통의 날 온택트 라이브 쇼'도 그의 기획이다. 코로나19로 한류를 소비하는 해외의 풍속도가 바뀌었지만,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상으로도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 원장은 21일 “과거 대면 공연은 각 지역 한류 팬들만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무대가 많았다”면서 “온라인 공연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터키 전역의 한류 팬들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주터키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아이돌 그룹 A.C.E의 온라인 콘서트와 팬미팅은 동시 접속자 1만4000여명을 넘기며 대면 무대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박 원장은 현지 팬들의 관심은 한국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더욱 뜨겁다고 강조한다. 그는 “10대부터 30대 이상까지 케이팝 가수와 한국배우 팬클럽 회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TV드라마를 통해 주부를 비롯한 가족 단위 팬도 늘어나고 있다. 현지 한류 팬들의 수요와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악과 태권도를 좋아하는 현지인들의 사물놀이팀을 비롯해 부채춤·가야금·태권도 시범팀 등을 운영하며 공연도 펼치고 있다.

박 원장은 이처럼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문화의 종합 축제”를 목표로 내세웠다. 2023년 10월29일 터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팝 그룹의 현지 주요 도시 투어 콘서트, 한복 및 현대 의상 패션쇼, 국립발레단 공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터키 대통령심포니오케스트라 합동 음악회,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프로젝트 전시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역시 형제의 나라!” 최고의 전통예술가들이 펼쳐내는 신명의 가락에 한국과 터키의 팬들이 뜨겁게 화답했다. 6·25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며 이후로도 오랜 시간 우애를 나눈 두 나라의 지난 시간과 더욱 깊어질 우정이 흥에 겨운 리듬에 한껏 실렸다.

국악인 박애리를 비롯해 공연예술가 팝핀현준, 한국무용가 석예빈, 트로트가수 나태주가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터키시간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주터키한국문화원이 주최한 '2021 터키-한국 소통의 날 온택트 라이브 쇼:비밀리크테 바사라자오즈'.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의미의 터키어를 앞세워 유튜브로 전 세계 생중계한 공연에서 무대와 온라인 객석은 하나가 됐다.

팝핀현준·박애리·석예빈·나태주 온라인 공연 통해 현지 팬과 교감 태권도 발차기 퍼포먼스에 환호성 물동이춤 포인트 안무 강습 인기 석예빈 “터키팬 만나러 가고 싶어”

●전통과 현대의 '컬래버' 무대

공연의 문은 국내 '1세대 스트리트 댄서'로 유명한 팝핀현준이 열었다. 노래 '돈 스톱'(Don't Stop)을 부르면서 관객을 자유 자재로 꺾는 일명 '팝핀댄스'를 펼쳐 보는 이들의 어깨를 들썩였다. 2018년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기원하며 남측예술단이 평양에서 펼친 공연 '봄이 온다'에도 나섰던 한국무용계의 스타 석예빈이 뒤이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라 '물동이춤'을 선보였다. 머리 위 파리에 물동이를 자석처럼 딱 고정 “봄날에 꽃밭에 앉아 춤추는 나비의 모습”을 표현했다.

‘태권 트로트댄’ 나태주는 신곡 ‘힘내라 대한민국’과 ‘무조건’을 연이여 불렀다. ‘태권도 홍보대사’답게 태권도 동작을 활용한 날렵한 몸놀림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4000여 태권도 사범들이 2000여개의 태권도장을 운영할 정도로 태권도의 인기가 높은 터키의 관객을 만나 더욱 의미가 깊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춘향가’의 이수자 박애리는 그 한 대목인 ‘썩대머리’를 구성진 목소리로 열창해 객석에 촉촉한 감성을 불어넣었다. 그는 “가장 한국적인 음성으로 가장 한국적인 노랫가락을 선보였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날 전체 무대를 진행한 박애리는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을 부르며 선율에 몸을 실은 팝핀현준·석예빈과 함께 했다. 전통과 현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무대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었다.

●“언젠가 직접 만날 수 있길”

이들은 실시간으로 공연을 지켜보는 600여 이용자와 적극 소통했다. 석예빈은 터키



어로 “메르하바”(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하고, 즉석에서 ‘물동이춤’의 포인트 안무를 소개했다. 박애리는 “이 순간 한국에 있는 것 같다”는 터키어 댓글에 “눈앞에서 마주한 느낌에 마음이 찌르르하게 울린다”고 말했다. 발차기 시범을 보인 나태주는 “따라해보고 싶다”는 한 댓글에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라며 농담 섞인 당부를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

무대 위 예술가들과 공연을 지켜본 이들은 교감의 우정도 나왔다. 박애리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며 “2003년 터키 안탈리아 아스펜도스 야외극장에서 공연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반갑다. 국악인으로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석예빈은 “‘형제의 나라’ 터키에 가보지 못한 아쉬움을 풀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문화를 보고 싶어 하는 터키인들을 직접 만나러 가고 싶다”며 웃었다.

국립중앙박물관 |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공연예술가 팝핀현준·트로트가수 나태주·국악인 박애리·한국무용가 석예빈(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2021 터키-한국 소통의 날 온택트 라이브 쇼:비밀리크테 바사라자오즈'에서 무대를 펼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석예빈 물동이 춤 최고” 현지 팬도 엄지 척!

터키 현지 팬들 폭발적인 반응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무대였다.”

20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도심인 잔카야에 자리한 주터키한국문화원 3층 공연장에서 현지 한류 팬 14명이 모여 들었다. 이날 주터키한국문화원이 주최한 '2021 터키-한국 소통의 날 온택트 라이브 쇼'를 한 시간 앞둔 시각이었다. 박기홍 주터키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열렬한 반응을 드러냈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자 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공연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된 공연은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직접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생생함을 안겨 주었다. 파디메 조순규(여성·28세)은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테마가 너무 좋았다”며 “한국과 터키의 꿈을 수 없는 우정은



20일 오후 터키 앙카라의 주터키한국문화원 3층 공연장에서 현지 한류 팬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 | 주터키한국문화원

뜻한다. 덕분에 공연을 아주 흥미롭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내가 운이 좋은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 팬들은 공연 내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평소에도 한국 전통문화와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는 파디메 조순규(여성)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관찰하는 재미도 느꼈다고 했다. 석예빈의 ‘물동이춤’이 가장 흥미로웠다는 그는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정연 기자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후원 : kotra 1879

엔예뉴스 HOT 5

방탄소년단 멤버 7명 내년 동반 입대?

그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내년 동반 입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1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분석 리포트에서 “RM·진·슈가·제이홉·지민·뷔·정국 등 일곱 멤버들의 내년 동반 입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애널리스트는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 레벨의 월드스타여서 군 복무 이후에도 지속적인 흥행과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하이브 측은 “드림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30세 이하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인’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화사가 “지난해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솔로 부문을 수상했다”면서 “미니앨범 ‘마리아’(Maria)로 한국 여성 솔로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7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홍상수 감독 친형, 석 달째 행방 묘연

홍상수 감독의 친형(70)이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강원 평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1월 28일 홍 감독의 친형에 대해 딸이 “아버지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홍 감독 친형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중심으로 행방을 찾는 한편 휴대전화 통신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그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B 온라인 공연, 주최측 일방 취소로 무산

윤도현이 이끄는 밴드 YB의 첫 온라인 공연이 무산됐다. 21일 YB는 팬카페를 통해 “5월9일로 예정했던 단독 온라인 공연이 최종 취소됐다”고 밝혔다. “1월 한 온라인 공연 플랫폼의 섭외를 받고 공연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들을 위해 진행을 결심했다”는 이들은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최 측으로부터 조건부 계약에 대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인 디컴퍼니가 주최 측과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권해효·박하선, 전주국제영화제 진행

배우 권해효와 박하선이 29일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영화제 개막식에 사회자로 나선다. 최근 작인 ‘반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해온 권해효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로 위촉됐다. 올해 ‘고백’에서 주연한 박하선은 영화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하선의 씨네타운’의 DJ이며, 주연작 ‘첫 번째 아이’로 이번 영화제 한국경쟁 본선에 초청받았다.